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순다랜드의 중심지로서 제주도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IV. 군자국과 제주신화의 비교

V. 나가는 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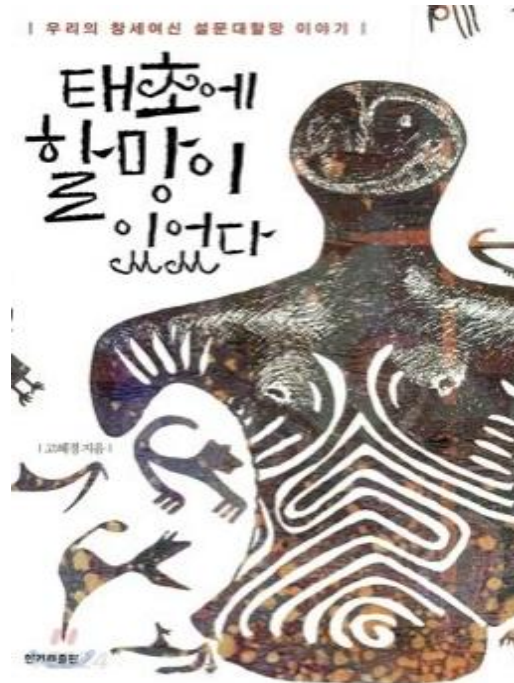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는
『성서』와 『포폴 부』 신화와
공통점이 있다.

신연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연우 교수



제주신화의 대표격인 설문대할망
신화는 세계적으로 드문 위대한 여성
신화원형임을 주목했다

고혜경, <신화와 꿈 아카데미> 원장



차사본풀이·천지왕본풀이에 작가
상상력 더해 새로 재탄생

주호민, 신과 함께 원작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조선 영조 47년, 1771년에 제주도 선비였던 장한철(張漢喆)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태풍을 만나 류큐 왕국(오키나와)으로 표류해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

설문대할망 관련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한철의 『표해록』 -국립제주박물관

或起拜向漢拏而祝曰 白鹿叀子活我活我
 詵麻叀婆活我活我
 蓋耽羅之人諺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
 又傳邃古之初有詵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

[혹은 (상인들 중 일부가)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이르기를 “백록선자께서는 (저희들을)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께서는 (저희들을) 살려줍서, 살려줍서!”라 축원한다. 대저 탐라인의 옛말에 선옹이 백록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 아득한 옛날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 한다.]

-1771년 정월 초닷새

하나는 ‘詵麻叀婆(선마선파) 곧 詵麻姑(선마고)’이다. 그러니까, ‘선마(고)’와 ‘선문(대할망)’은 외형상 비슷한 글자이니 양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다. ‘선문대’는 ‘설문대’의 이형(異形)이다.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이다, 그러니까, 선마고가 키가 한라산만한 설문대할망이 아니라면 서해를 침범침범 걸어 건너올 수는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유라시아 원시언어 발생 지역〉



BC 7만년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의 영역〉



BC 1.2만년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BC 0.23만년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 1)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오른손에는 창의 종류인 트라이던트, 왼손에는 돌고래를 잡고 있는데, 그는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의 아들 중 하나로 형제들과 함께 세계를 분할 통치하고 있었다.
- 2)제우스는 대지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포세이돈은 해양의 지배권을 가진 신이었는데, 그리스의 신들은 포세이돈에게 아틀란티스 섬을 지배하도록 했다.
- 3) 섬의 평야 지역에 있는 언덕에는 대지에서 태어난 한 쌍의 인간 부부와 그 외동딸인 크레이토우가 있었는데, 부부가 죽은 다음 그 딸에게 정욕을 느낀 포세이돈은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다.
- 4) 포세이돈은 언덕 주위의 대지를 부수어 바닷물을 끌어 들였고, 그 결과 섬의 중앙부를 축으로 하여 둥근 모양의 육지가 이중으로 둘러싸는 형상이 되었다.
- 5) 당시 사람들은 배나 항해술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중앙에 있는 크레이토우의 주거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이 땅에 포세이돈은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는 두 개의 샘을 파고 대지에는 모든 종류의 작물이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했는데, 이곳은 나중에 **중앙섬**이라 불리며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 6) 이곳에서 포세이돈과 인간의 딸은 다섯 쌍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아틀란티스 섬을 **10등분해서 아들들을 각각의 왕으로 삼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왕 중의 왕이** 되었다.
- 7) 그 아들 이름이 아틀라스(Atlas)이었기에 이 섬이 아틀란티스라 불리게 되었는데, 아틀라스 일족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반드시 가장 연장자가 왕권을 물려받았으며 몇 대에 걸쳐서 변영이 계속되었고, 다른 왕국도 마찬가지로 변영했지만 이들 왕국 사이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으며, 항상 이 규율을 준수했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8) 그 규율이란 아틀란티스 내부에서의 싸움은 엄하게 금하며, 만일 어느 왕국에선가 왕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나면 각 왕국의 왕은 서로 힘을 합해 이에 맞서 싸우며 아틀라스 일가의 지휘를 따른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왕 중의 왕이라 하더라도 열 명의 왕 중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형제 왕 누구라도 그를 처벌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

9) 포세이돈의 열 명 왕의 자손들은 서로 결속해서 국토의 정비와 개발에 노력했는데, 우선 시조의 거처였던 중앙섬을 둘러싼 해로에 다리를 놓았고, 요소에는 터널을 뚫으며 신전을 만들었으며, 커다란 배로도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운하를 종횡으로 만들고 운하 입구에는 도크도 설비했다.

10)여러 개의 신전들 중에서 특히 호화롭고 웅장했던 것은 포세이돈을 모시는 신전이었는데, 가로 약 180미터, 세로 약 90미터의 거대한 건축물로서 외장은 모두 은판, 지붕은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내부의 천장은 모두 상아로 되어 있었으며 금이나 은, 황동, 백금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1)이 신전에는 많은 황금상들이 놓여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전차 위에 서서 여섯 마리의 천마를 달리는 포세이돈 상이었고, 신전 주위에는 역대 왕들의 황금상이나 시민들이 봉납한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헌상한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12)이 중앙섬을 둘러싼 둥근 모양의 육지에도 그 용도에 따라 전차 경기장이나 근위대 병사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었고, 가장 바깥쪽에는 일반 가옥들이 뺌뺌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항구는 세계 각지로부터 찾아온 무역 상인들이나 선원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다.

13)플라톤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이 섬 남쪽에는 광대한 대륙이 있었는데, 그곳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푸른 풀들이 자라는 너른 평야였으며, 왕국은 이 땅에도 바둑판처럼 질서 정연하게 운하를 만들었다.

14) 평야는 동서가 533킬로미터, 남북으로는 355킬로미터의 직사각형으로 주위를 폭 180미터의 대운하가 둘러싸고 있었고, 동서남북을 횡단하는 몇십 개의 수로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수로를 이용해서 목재나 작물을 운반했던 것이인데, 이 평야에서는 운하 덕분에 한 해에 두 번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한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 15) 아틀란티스의 평야 부분은 6만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남성 지도자가 각각 한 명씩 선발되어 군사 체제도 이 지도자의 지휘로 제각기 조직되었다.
- 16) 전차는 여섯 지역에 한 대, 각 지역에 전차용 말 두 마리, 기수 두 명, 기병과 주자 각 한 명, 중무장한 보병 궁수 · 투석병 각 두 명, 가벼운 장비의 투석병 · 투창병 각 세 명, 그리고 1,200척이나 되는 선박의 승선원으로 네 명씩을 징병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으니, 대충 계산해보아도 육군 1백 만 명, 해군 24만 명이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 17) 아틀란티스 왕국은 풍요로운 산물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교역도 활발하여 크게 발전했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낙원에도 점차 사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 18) 플라톤은 그 이유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사치에 맛을 들여 부와 물질만을 추구한 결과, 그 신적인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 19)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원래 신과 인간의 혼혈인데, 처음 몇 대 동안에는 그들 속에 신으로서의 성질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매우 고매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계속되면서 점차 인간의 성질이 강해지자 막대한 재산이 오히려 짐이 되어 사치에 빠져서 자제심을 잃고, 부를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 것이다.
- 20)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왕국이 아테네 침공을 꾀하였는데 아테네군의 과감한 반격으로 인해 패배해서 물러났다고 하며, 신이 그 힘을 아틀란티스 편에서 아테네 편으로 옮긴 결과라고 설명한다.
- 21) 또한 대지진과 홍수가 급습하여 아틀란티스는 민족과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다량의 토사가 바다 밑바닥에 쌓여서 지브롤터 해협은 그리스인들의 항해를 방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부도지

삼국사기(三國
史記)의 박제상
삼국유사(三國
遺事)의 김제상

징심록(澄心錄) - 15지(誌)			
구분	상교(上敎)	중교(中敎)	하교(下敎)
1	부도지(符都誌)	사해지(四海誌)	농상지(農桑誌)
2	음신지(音信誌)	계불지(袈裟誌)	도인지(陶人誌)
3	역시지(曆時誌)	물명지(物明誌)	?
4	천웅지(天雄誌)	가악지(歌樂誌)	?
5	성신지(星辰誌)	의약지(醫藥誌)	?

징심록은 3종류(상교,중교,하교) 15권의 지誌 로 구성
추가) 금척지, 징심록추기 = 모두 17권

신라시대 충신

김부식의 삼국사기
와 일연의 삼국유사
에 등장

망부석 이야기
유명

부도지 기록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							
궁희				소희			
황궁씨	청궁씨	천녀1	천녀2	백소씨	흑소씨	천녀3	천녀4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아들	딸	딸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구분	실(實)	허(虛)
마고대성(麻姑大城)	실달지성(實達之城)	허달지성(虛達之城)
마고의 비행물체	지구(행성)	달(위성)

선천의 시기			
위치	상부(윗쪽)		하부(아랫쪽)
구분	마고대성	허달대성	실달대성
병렬	마고성이 허달성과 함께 실달성 위에서 병렬하였다.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성에 지유(地油)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고성의 변화
구분	이희(궁희와 소희)		지유가나옴에 따라서 이희가 사천인 사천녀 를 낳고 지유(地油)를 먹여서 길렀다.
생산(출산)	사천인(四天人)	사천녀(四天女)	
목적(임무)	집룻-울을 맡다.	집려-려를 맡다.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부도지

1. 제 1장 원문

麻姑城은 地上最高大城이니 奉守天符하여 繼承先天이다. 城中四方에 有四位天人이 提管調音하나, 長曰, 黃穹氏요, 次曰 白巢氏요, 三曰 靑穹氏요 四曰 黑巢氏也라. 兩穹氏之母曰穹姬요 兩巢氏之母曰巢姬니, 二姬는 皆麻姑之女也라. 麻姑는 生於朕世하여 無喜怒之情하니, 先天爲男하고 後天爲女하여 無配而生二姬하고, 二姬도 亦受其精하여서 無配而生二天人二天女하니 合四天人四天女였다.

III.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부도지

1. 麻姑城은 地上最高大城이니 奉守天符하여 繼承先天이다.
마고성 지상최고대성 봉수천부 계승선천
2. 城中四方에 有四位天人이 提管調音하니
성중사방 유사위천인 제관조음
3. 長曰 黃穹氏요, 次曰 白巢氏요, 三曰 靑穹氏요 四曰 黑巢氏也라.
장왈 황궁씨 차왈 백소씨 삼왈 청궁씨 사왈 흑소씨야
4. 兩穹氏之母曰穹姬요 兩巢氏之母曰巢姬니, 二姬는 皆麻姑之女也라.
양궁씨지모왈궁희 양소씨지모왈소희 이희 개마고지녀야
5. 麻姑는 生於朕世하여 無喜怒之情하니, 先天爲男하고 後天爲女하여 無配而生二姬하고,
마고 생어짐세 무희로지정 선천위남 후천위녀 무배이생이희
6. 二姬도 亦受其精하여서 無配而生二天人二天女하니 合四天人四天女였다.
이희 역수기정 무배이생이천인이천녀 합사천인사천녀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1. 아틀란티스의 존재 시기 ; BC 9,570년 ~BC 9,000년경
2. 멸망사유 ; 대지진과 대홍수
3. 위치 ; 지중해 밖의 거대한 대양에 위치한 대륙의 항만

임환영은 플라톤이 말하는 아틀란티스는 마고족이 이동해 간 아메리카에서 탄생한 새로운 빙하기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1,2,3의 사항을 보면, 빙하시대 말기로서 BC 9,000년경 후빙기가 시작되어 해수면이 140m가 상승하였으니, 아틀란티스는 분명 거대한 대륙붕이 잘 발달된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부근이나 동아시아 오키나와 부근이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스 로마 이전의 유럽은 지속적인 아메리카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근원은 이집트 사제가 Solon에게 전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친구인 Dropides에게 전해진 것이고, 다시 그 친구와 증손자인 Critias와 대화의 형태로 플라톤이 기록한 것인데, Critias는 플라톤 (Platon)의 증조 외조부이므로 플라톤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부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솔론은 그리스의 손꼽히는 정치가로서 결코 허튼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전할 인물이 아닌 것이고, 플라톤도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오늘날 까지도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대학자인데 허튼 소리를 지껄일 위인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플라톤의 그 유명한 이데아론은 아틀란티스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말의 아들이나 아틀란티스는 모두 북소토어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어 <물>도 북소토어 moela (stream)에서 유래한 것이고 한국어 중에서 어기야 어여차 등 물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말들은 모두 북소토어인 것이며, 아메리카 인디언어도 대부분 북소토어에서 유래하였다.

임환영 외에도 순다랜드와 제주도를 연결시킨 연구자들은 삼성혈신화도 재해석한다. 삼성혈 신화의 고,부,양은 홍수를 피해 높은 고지대인 제주도에 이동한 주변 민족으로 간주한다. 고, 부,양은 환인시대 문명이 건설되었다는 산동반도에서 가장 많은 성씨였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마고 할미를 비롯한 마고족은 예루살렘 (요새의 뜻)인 맹골군도 유역을 떠나 아메리카의 멕시코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다. <예루살렘 (Yerushalayim)>은 르완다어 yerurutsa (to hide) + <세소토어 sala + 르완다어 ima>로서, 살림살이를 감추다는 뜻으로서, 요새로 이루어진 <성(城)>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도지의 마고성 또한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도남부의 맹골군도는 바로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였다고 한다. 멕시코의 인디언은 북소토족으로서 마고의 후예이며, 세소토족인 켈트족은 후빙기에 북쪽인 오대호와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이때 남미일대에 세운 문명을 기존의 아틀란티스 이름을 붙여 만들어 이것이 아틀란티스 코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아틀란티스 남미설의 기원이 된다. 아틀란티스(Atlantis)는 북소토어 <atla (to prosper) + ntisa (to care)>로서, atla는 한국어 <아들>의 어원이며, 천도한 수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수메르 왕들의 목록>에서 BC 3,500년 <대홍수> 이전 역사를 모두 더하면 한반도에 세워진 설문대할망의 마고왕국의 기원인 BC 12,000년 산출된다고 한다.

세소토족이 켈트족이며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

수메르 홍수이전 시대

도시	통치자	단위	기록연도	환산연도(년)	기간(년)	연도(BC)	시대
에리두	알룰림	8 sars	28,800	480	1080	11,200	마고시대
	알라가르	10 sars	36,000	600		10,120	
바드티비라	엔엔루 안나	12 sars	43,200	720	1200	8,920	황궁씨 시대
	엔멘갈 안나	8 sars	28,800	480			
	두무지	10 sars	36,000	600	1080	7,840	황궁씨 및 아틀란티스
라라크	엔-시파드-지드-아나	28800년	28,800	480			
시파르 슈트팍	엔-멘-두르-아나	21000년	21,000	350	660	7,180	황궁씨
	우바라-투투	18600년	18,600	310			
계			241,200	4,020			

Jack Finegan(1974)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화의 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옛날에 제주도에는 <천지창조한 여신> 수준의 할머니가 있었다.
- 2) 그 할머니는 치마폭에 <흙을 담아 수많은 오름들을 만들었고>, 한라산도 그중 하나였다.
- 3) 할머니는 <제주와 한반도 남해안을 연결>할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연결하려 하였다.
- 4) 그런데 할머니의 <요구조건은 명주1백통>이었고 백성들은 이를 <완납하지 못하였다>.
- 5) 결국, 할머니는 <육지 연결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Ⅲ .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설문대할망

- 1) 설문대할망은 천지창조한 여신이였다...이것은 마지막 빙하기의 바닷물이 빠져서 대륙붕이 물으로 드러난 시기의 여성족장이었음을 나타낸다.
- 2) 흙으로 많은 피라밋 토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서남해 대륙붕 대평원에 홍수가 주기적으로 범람하므로 살아남기 위하여 높은 토루를 만들어 거주하였고 평시에는 내려와서 농경이나 사냥을 한 것을 의미한다.
- 3) 제주도와 한반도 남단을 연결하려 하였다.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130m 낮아져서 제주도와 한반도가 연결되었는데, 다만 황하나 압록강 한강 등이 합쳐진 큰 강이 그 사이로 흐르고 있었으니 다리를 놓아야만 하였다...
- 4) 할망은 백성들에게 명주 1백통을 요구하였으나 99통만 받았다.. 그당시 화폐는 대표 상품인 삼베(마)였지만 훗날 역사시대에는 명주가 화폐로 대체되었고, 할망은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할망이 요구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은 반란 사건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할망은 정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나타낸다.
- 5) 할망은 육지연결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죽었다...이것은 후빙기에 이르러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넘쳐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수몰하였으며, 할망의 시대는 영원히 바닷물속에 사라짐 것을 의미한다.

Ⅲ. 아틀란티스 신화와 제주신화의 비교-존자암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제주 불교의 발원지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정은 홍유손의

「존자암개구유인문」에서 “존자라는 이름의 암자가 만들어진 것은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설 때였다.”라고 하는 문장과

『대장경』 범주기의 제6존자 발타라가 아라한과 함께 살았다는 탐몰라주(耽沒羅洲)를 제주도에 비정한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